

許筠이 지향하는 삶

— 許筠 「傳」을 중심으로 —

이 규 운*

<目次>

- | | |
|-------------------|--------------------|
| I. 緒論 | 2. 詩人の 삶 : 「蓀谷山人傳」 |
| II. 許筠이 지향하는 삶 | 3. 인간의 삶 : 「南宮先生傳」 |
| 1. 眞儒의 삶 : 「嚴處士傳」 | III. 結論 |

<국문 초록>

許筠(1569년, 선조 3년-1618년, 광해군 10년)은 시대를 초월한 삶과 문학적 기행을 보여준 작가이다. 본 논문은 허균이 지향하는 삶을 許筠 「傳」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허균은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갈구하고 있었다. 「嚴處士傳」은 「學論」에서 비판한 僞學者들에게 경계가 될 만한 참된 儒者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許筠은 엄처사는 뚜렷한 출처관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孝와 敬을 실천한 선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蓀谷山人傳」은 許筠에게 시를 가르친 스승 李達(1539-1618(?))에 대한 인물 전이다. 허균은 이를 통하여 뛰어난 시적 재능과 노력, 시인으로서의 숭고미, 현세를 초탈한 시인의 삶을 입전하고자 했음 알 수 있다.

또한 「南宮先生傳」에서는 삶은 끝없는 좌절과 고뇌의 연속이라는 진리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주인공 남궁두는 좌절과 고뇌 속에서 현실 세계를 떠나 신

* 원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ddd3315@empas.com

선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찾지만, 終局에는 인간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에 순응하는 인생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잦은 浮沈에 괴로워했던 자신의 삶을 남궁두라는 주인공을 통해 위로 받고 싶었던 것이다.

【주제어】 許筠,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

I. 緒論

逸士傳의 작자는 종종 그 立傳 人物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그 속에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투사해 놓는다. 이 감정과 기분은 대개 자신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느끼는 자들이 갖게 마련인 그런 감정과 기분이다. 그러므로 逸士傳에서는 종종 연민의 감정이라든가 同病相憐의 감정 같은 것이 짙게 느껴진다. 작자는 이런 연민의 감정을 품은 채 입전 대상을 시간의 풍화작용 내지 망각의 세계에서 구해 내어 불멸을 부여하려고 기도한다.¹⁾ 許筠의 전 작품도 일민전이나 일사전의 성격을 지닌다. 「嚴處士傳」, 「蓀谷山人傳」, 「張山人傳」, 「南宮先生傳」, 「蔣生傳」은 당대의 시대이념인 유교를 勃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도가적 삶을 살아간 기인들을 입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²⁾ 許筠은 현실의 불만을 문장으로 그

1)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p.56.

2) 강동엽은 ‘남궁선생’의 당시 부패한 사회에 대한 항거와, ‘장생’의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행위는 모두 도술이라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을 통한 작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손곡산인’이나 ‘엄처사’, 그리고 ‘장산인’ 역시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보다는 문벌과 신분계층에 의하여 규정지어지는 모순된 사회에 태어난 불우한 인간들이었으며, 이들 인간들에 대한 작자의 이상과 현실과의 마찰은 때때로 격렬한 저항으로 또는 현실을 떠나 자못 노불자류인 체하나 그

대로 드러낸다. 불만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의 記文이나 論文을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징하게 보인다.³⁾ 그렇다면 허균이 「傳」작품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허균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嚴處士傳」과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許筠이 지향하는 삶

1. 眞儒의 삶 : 「嚴處士傳」

「嚴處士傳」은 처사의 전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입전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處士’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대를 난세로 인식하여 출사를 단념하고 초야에 은둔한 일군의 선비들을 말한다. 16세기에는 사화의 여파로 이러한 선비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이들은 隱士, 遺逸, 隱逸, 逸士, 處士 등으로 불렸다. 이 중 處士라는 칭호는 당대인들에게 매우 영예스러운 호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⁴⁾ 그들의 처사적 삶 속에는 성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현실대응 자세를 규정하면서 出

는 결국 자신의 꿈을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았다.(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도서출판 박이정, 2008, pp.156-157.)

- 3) 許筠은 문학의 내용을 현실의 문제로 삼았기에 다음과 같은 논설이 가능했던 것이다. 밝음으로써 아랫사람을 살피고 믿음으로써 신하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政論」, 국가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만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官論」, 체계적인 군정과 군대의 양성을 주장하는 「兵論」, 관리들의 녹은 줄이면서 그들의 청렴만을 독직하는 세태를 고발한 「厚祿論」, 음흉한 봉당의 똥는 소인이 조정을 전횡하는 것보다 심하다고 말하는 「小人論」, 재해나 날짐승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임을 강조한 「豪民論」 등은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 문장들이다.
- 4) 신병주, 「16세기 초 處士型學者的 學風과 現實觀-金大有와 朴河談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5, 남명학연구원, 1997, p.490.

處에 있어 出 대신 處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처사적 삶 속에는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함께 그들이 처한 16세기 시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향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

그렇다면 「嚴處士傳」을 통하여 허균이 이해하고 있는 처사의 전형은 무엇인가? 또한 허균이 엄처사를 입전하여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허균이 입전한 엄처사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엄처사는 출처관이 뚜렷하다. 처사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처사는 출처보다는 처에 치중한 학자이다. 엄처사는 책이라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周易』과 『中庸』을 깊이 이해하여 저술한 글들이 모두 河圖와 洛書에 서로 부합되었다.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服制를 마치자, 벗들이 과거에 응하기를 권했다. 處士는 울면서, “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과거보려 하였다. 이제 왜 과거를 보아 내 몸만 영화롭게 하고 어머니는 누릴 수 없게 하라. 나는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하면서 목멘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남들이 감히 다시는 말하지 못하였다. 晩年에 羽溪縣[강릉의 속현]으로 이사와 살며 山水가 幽絶한 곳을 택하여 띠집[茆舍]을 짓고, 거기서 일생을 마치려 하였다. 궁핍하여 제 몸을 의탁하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편안하게 살았다.⁶⁾

엄처사는 그 어머니가 글을 배워 과거를 보도록 권하자, 열심히 글을 배워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또한 詩賦도 매우 雅健하게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鄉試에 응시해 여러 번 뽑혔고, 司馬試에도 합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벗들이 과거에

5) 설석규, 「16세기 處士型士林의 性理學理解와 出處觀-花潭徐敬德과 南冥曹植의 경우-」, 『南冥學研究論叢』 9, 남명학연구원, 2001, p.120.

6)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嚴處士傳」, “制詔 朋友勸應舉, 處士泣曰, 吾爲老母也, 今奚赴爲 身榮而母不享, 吾不忍是, 悲咽不止, 人莫敢更言. 晩年 移居羽溪縣, 擇山水幽絶處 構茆舍, 若將終身焉. 窮乏不自聊 晏如也.”

나갈 것을 권하자 기뻐해주실 어머니가 없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평생을 우계현에 우거하였다. 결국 엄처사는 『孝經』의 구절을 몸소 실천하려고 했던 듯하다. “몸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신의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는 구절이 있는데, 엄처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과거에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처사는 출세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산림에 처해서 학문·도덕을 수양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간다. 그리고 부모를 핑계로 과거에 나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돌아와서 후학 양성에 힘써야 된다. 다음은 「金宗直論」의 일부이다.

김종직은 근세에 이른바 大儒라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벼슬하려고도 않더니, 光廟[세조]가 과거에 응시하도록 다그치니 부득이해서 과거에 올랐으며, 또한 侍從의 직책에 드나들더니 벼슬이 높아졌다. 그리고는 모친이 늙었으므로 억지로 벼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天壽를 다하고 세상을 마쳤는데도 오히려 벼슬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의 문인 金宏弼이 더러 그의 시정책 건의가 없음을 諫하면, 이어서, “벼슬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의하고 싶지 않다.” 하였다. 김종직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록을 취하고 명망을 훔치며 능청스럽게 한갓 수레를 붉게 하고 인끈을 붉게 한다고 말해지는 바의 사람이었다.⁷⁾

金宗直(1431-1492)은 부모를 핑계로 자신의 절개를 굽히고 벼슬에 나갔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관직은 大司寇(형조 판서를 가리킴)로 더욱 뛰어올랐다. 그만 쉴 만도 하나 오히려 더 탐내며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종직은 成宗朝의 大儒라고 일컬어져, 전시대의

7) 許筠, 『惺所覆瓿藁』 卷11, 「文部」 8, 「金宗直論」, “金宗直 近世所謂大儒也. 少嘗不肯仕, 先廟迫令赴舉. 不得已登第, 亦出入於侍從華顯矣. 乃稱母老而勉仕, 及母以天年終, 猶仕不止. 其門人金宏弼 或規其無建白, 乃曰 仕非吾志, 故不欲也. 若宗直者, 眞所謂私其利竊其名, 偃然徒朱軒赤紱者也.”

정몽주-길재-김숙자를 잇는 도통의 한 축으로까지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許筠은 「金宗直論」에서 그가 어머니를 핑계로 벼슬에 나갔으면서도 어머니가 천수를 다하고 세상을 마쳤으나, 오히려 벼슬을 그만 두지 않은 점을 들어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와 반대로 남효온의 진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머니가 과거 공부하라고 말하면 司馬試[진사과]에 합격하여 영화롭게 해드리고는, 일생을 마치도록 祿은 말하지 않아 애초에 했던 말을 실천하였다. 이것은 志士나 介夫가 慷慨한 마음으로 富貴에 개의하지 않던 사람이나 하던 일이었다. 어떻게 이룩이나 취하고 명망이나 흠치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날[同日]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남효온의 뜻을 애석하게 여기니, 그가 지혜가 밝지 못하고 局量이 좁았기 때문이다. 그런 抗疏를 하던 해에 남효온은 겨우 20세였다.⁸⁾

남효온은 사마시에 합격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임금에게 명분을 바르게 하려고 소를 올렸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비가 임금에게 쓰이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도를 행하려고 해서다. 그러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괜스레 영리만 탐낸다면 선비가 아니다.[士之求用於君者 乃欲行其道也. 道不行而徒耽其榮利 則非士也.]”라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았다. 허균은 이와 같이 부모를 핑계로 과거에 응시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퇴도 뚜렷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허균은 엄처사의 뚜렷한 출처관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嚴處士는 孝와 敬을 실천한 사람이다. 『小學』에 “집안에 들어가

8) 許筠, 『惺所覆瓿藁』 卷11, 「文部」 8, 「南孝溫論」, “母氏有言 則占司馬以榮之, 終其身不言祿 以踐初言. 是則志士介夫慷慨 不屑富貴者之所爲也. 詎可與私其利竊其名者 同日而語哉? 故曰非得已也, 乃不得已也. 雖然, 余悲孝溫之志而闢其智隘其量也. 其抗疏之年, 溫纔二十.”

선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공손하며, 행실은 삼가고, 말은 미덥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를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글을 배울 일이다.[入則孝 出則悌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입전하고자 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자.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효성을 다하여 아침 저녁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금만 편찮으면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지 않으며, 손수 음식을 만들어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산비둘기 고기를 좋아하시자, 그물을 짜고 간대에 갖풀을 붙여서라도 기필코 잡아다가 대접하였다. (中略) 어머니 병환이 위독하여 몸소 어머니 살려 주기를 하늘에 기도했지만 복을 얻을 수 없자 여러 날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아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날 정도였다. 3년간 廬墓살이에도 죽만 마셨다. (中略) 사람됨이 화평하고 순수하며, 평탄하고 툭 트여 남들과 거스르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공손하고 지성스러웠으나 고을에서의 잘잘못을 평하거나,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어야 할 것들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하여 범할 수가 없었다. 일체를 義로만 재단하자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였다.)⁹⁾

이 글은 엄처사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몸과 성의를 다했고, 또 고을에서는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어머니가 비둘기 고기를 즐기자, 그물을 짜고 간대에 갖풀을 붙여서라도 기필코 잡아다가 봉양하였고[母嗜山雀 結網膠竿 必獲以供之], 어머니가 위독할 때는 여러 날 먹지 않아서 쓰러질 정도[水漿不御數旬 杖而起 三年廬啜粥]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손하고 의롭게 생활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엄처사를 공경하고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균은 당대 처사들이 실천궁행의 지표로 삼았던 『小學』을 실천하는 엄처사를 입전

9) 許筠, 『惺所覆瓿藁』卷8, 「文部」5, 「嚴處士傳」, “養其母極孝, 晨夕不離側. 母稍恙則不解帶寢, 手調膳以進. 母嗜山雀, 結網膠竿, 必獲以供之. ……母病殆, 以身禱於天 不獲祐, 水漿不御數旬, 杖而起. 三年廬啜粥. ……爲人和粹夷曠 不與人忤. 恒居肫肫如也, 及至鄉評臧否 辭受取與之間, 截然不可犯. 一切以義裁之, 鄉人皆受而敬之.”

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허균은 엄처사가 역사 인식이 뚜렷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은 엄처사가 제자를 가르칠 때의 행동을 묘사한 부분이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忠孝를 첫째로 하고 화려한 名利 따위야 완전히 벗어난 듯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 史書를 읽으며 成敗·治亂·君子·小人을 구별함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강개하여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음을 만하였다. 武穆이나 文山이 죽어간 대목에 있어서는 별안간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¹⁰⁾

嚴處士는 제자를 가르칠 때 名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충효만을 가르쳤다. 또 史書를 읽으면 成敗, 治亂, 君子, 小人을 구별함에 있어서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었다. 이는 모두 국가 차원의 성패와 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군자와 소인이다. 엄처사는 이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분강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武穆이나 文山이 죽어간 대목¹¹⁾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는 간신배들의 농락으로 인하여 충신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곧 무목과 문산의 일은 지나간 시대의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당세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자신도 출사하지 않고 처사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당세의 상황을 허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嚴處士傳」, “訓誨後進, 必以忠孝爲先, 以其紛諱名利, 則泊然不一出諸口. 讀史至成敗治亂君子小人之辨, 必慷慨論折齷齪可聽. 於武穆·文山之死, 則輒掩卷流涕.”

11) 이들은 중국 역사에서 이름난 충신들이다. 무목은 송나라 사람으로 악비를 말한다. 무목은 시호이다. 그는 39세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문산은 송나라 사람으로 문천상의 호이다. 그는 송나라 좌정승의 벼슬을 지냈는데, 원나라가 침입하였을 때 연에 잡혀가 3년을 옥에 갇혀 지냈다. 그러다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다가 피살된 인물이다.

요즈음의 이른바 군자·소인이란 서로 간에 큰 동떨어짐이 없다.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면 모두 군자로 여기고, 달리하면 모두 소인으로 여긴다. 저편이 다르다면 배척하여 사악하다 여기고, 이편과 뜻을 같이 하면 치켜세워 바르다고 여긴다. 是란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是이고, 非란 그들이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 非이니, 이진 모두 公이 私를 이길 수 없는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¹²⁾

이는 「小人論」의 일부이다. 소인이나 군자가 별다른 차이 없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면 군자로 여기고, 달리하면 소인으로 몰아가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다. 곧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면 사악하게 여기고, 뜻을 같이하면 바르다고 하여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몰려다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현실을 엄처사는 직시했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며, 허균은 이러한 엄처사의 역사인식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넷째, 許筠은 論評하는 글에서 嚴處士는 不遇한 인물이었음으로 입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嚴處士는 자신의 죽음도 미리 알고 준비하였고, 단정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한 문장으로도 세상에 알려져 조정에서 두 번이나 참봉의 벼슬을 내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처사였다. 허균은 嚴處士가 죽었을 때의 주변의 반응을 적고 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면식이 있던 없던 간[識與不識]에 사부들이 모두 와서 조상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는 곧 당시의 학식이 있는 선비라면 모두 嚴處士의 도덕 수양과 그것의 실천을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처사는 배향되어야 할 인물이다. 인물이 백성을 위한 공이 있으면 社에 모셔 享祀하고, 나라를 위한 공이 있으면 宗廟에 모셔 향사하며, 학문과 도를 위한 공이 있으면 文廟에 모셔 향사하는 것이 유교 사회에 통용되던 제사의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엄처사는 어떤 위치에서든 향사되어야 할 존재로

12) 許筠, 『惺所覆瓿藁』 卷11, 「文部」 8, 「小人論」, “方今之所謂君子小人, 无大相遠者, 而同則皆爲君子, 異則皆爲小人. 彼異則斥以爲邪, 此同則推以爲正. 是者是其所是, 非者非其所非. 此皆由公不能勝私而然也.”

인정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嚴處士와 같이 훌륭한 선비들은 많은데도, 이런 선비들은 인멸되도록 방치하고 후대에 의론이 많은 사람들을 문묘에 종사하고 있었다. 허균은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보고 「學論」을 지어 경계를 삼았던 것이다. 나아가서 「嚴處士傳」의 엄처사 같은 인물형을 제시하여 참된 儒者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2. 詩人의 삶 : 「蓀谷山人傳」

「蓀谷山人傳」은 許筠에게 시를 가르친 스승 李達(1539-1618(?)) 에 대한 인물전이다. 許筠은 젊었을 때 중형 許篈의 소개로 누이 許蘭雪軒과 함께 손곡에게 시를 배웠다. 그러므로 허균과 손곡은 사제지간이다. 허균은 손곡의 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시는 供奉(이백을 가리킴)에 근본을 두었고 右丞(왕유를 가리킴)과 隨州(유장경을 가리킴)를 드나들어 기운이 다사롭고 지취가 뛰어나며, 빛이 곱고 말이 담담하며, 그 곱기는 南威(춘추 시대의 미녀)와 西施가 盛服하고 밝은 화장을 한 듯하고, 그 온화함은 봄별이 온갖 풀을 덮는 듯하며, 그 맑음은 서리 같은 물줄기가 큰 골짜기를 씻어 흐르는 듯하고, 그 음향이 맑게 퍼져가는 것은 마치 높은 하늘에서 학 타고 피리 부는 신선이 오색구름 밖을 떠도는 듯하며, 끌어당기면 노을빛 비단과 미풍의 잔물결 같고, 깔아놓으면 구슬이 얹고 옥이 달리며 두드리고, 갈면 비파의 애절함과 구슬의 울림이요, 억제하고 누르면 천리마가 멈추고 용이 움츠렸고, 그 일없는 때에 천천히 걸음은 평탄한 물결이 넘실넘실하여 천리를 흘러가는 듯하며, 태산의 구름이 바위에 대질러 흰 옷도 되고 푸른 개도 되어, 開元·天寶(당 현종의 연호)·大歷(당 대종의 연호)의 사이에 놓아도 王維와 岑參의 대열에서 멀리 기울지 않으며, 우리나라 이름난 많은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 또한 눈이 휘둥그레져 三舍(90리)나 물러설 것이다.¹³⁾

13) 許筠, 『惺所覆瓿藁』 卷5, 「文部」 2, 「蓀谷集序」, “其詩本源供奉, 而出入乎右丞, 隨州氣溫趣逸, 芒麗語澹, 其艷也若南威, 西子絃服而明粧, 其和也若春陽之被百卉, 其清也若霜流之洗巨壑, 其響亮也若九霄笙鶴仿 像乎五雲之表, 引

이는 허균이 쓴 「蓀谷集序」의 내용이다. 손곡의 시가 지니는 旨趣를 드러낸 것이다. 많은 美辭麗句를 사용하여 손곡시의 뛰어난 점을 칭찬하였다. 손곡시의 뛰어난 점은 당시의 시풍과는 다른 唐風이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손곡은 처음에는 두보와 소동파의 시를 호음(鄭士龍의 호, 1491-1570)에게서 배웠다고 한다.¹⁴⁾ 그러다 唐詩를 익혀 여타의 많은 작가들과 비교하면 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90리나 물러설 정도로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의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선집의 서문이고, 제자가 스승의 시를 평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반면에 손곡이 허균의 시를 평하는 것은 매우 매섭게 평했던 것 같다. 다음은 許筠이 이달에게 보낸 척독이다.

翁[손곡]께서는 저의 近體詩가 純熟하고 嚴續하여 盛唐의 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는 살피시지 않으시고, 오직 古詩만 좋다고 하며 南朝의 문장가인 顏延之와 謝靈運의 풍격이 있다고 하시니, 이는 옹께서 고집만 부리시고 변화를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古詩야 비록 예스러우나 이걸 그대로 베낀 것 이어서 옛것과 逼真할 따름이니, 屋下架屋을 어떻게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近體詩는 비록 唐詩와 흡사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저의 造化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나 宋詩와 유사하다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니,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건방진 생각이라 하지 마십시오.¹⁵⁾

이 글은 자신의 근체시가 純熟하고 嚴續하여 盛唐의 시와는 관계가

之霞綺風淪，鋪之璧坐機馳，鏗而厲之，則瑟瑟而球戛，抑而按之，則驥頓龍蟄，徐行其所無事，則平波滔滔然千里朝宗，而泰山之雲觸石爲白衣蒼狗，置在開·天·大曆間，瑕不廁王·岑之列，而較諸國朝諸名家，其亦瞠乎退三舍矣。”

- 14) 李達, 『蓀谷詩集』, 「蓀谷集序」, “同時有蓀谷翁者, 初學杜蘇於湖陰. 其吟諷者既鴻續純熟矣.”
- 15) 許筠, 『惺所覆瓿藁』 卷21, 「文部」 18, 「與李蓀谷」, “翁以僕近體爲純熟嚴續不涉盛唐 斥而不御 獨善古詩爲顏, 謝風格 是翁膠不知變也 古詩雖古 是臨榻逼真而已 屋下架屋 何足貴乎 近體雖不逼真 自有我造化 吾則懼其似唐似宋而欲人曰許子之詩也 毋乃濫乎”

없다는 손곡의 평에 반발하여 보낸 尺牘이다. 許筠은 손곡과 마찬가지로 당세에 문명이 있다고 자부하던 인물이다. 그런데 손곡은 허균의 古詩는 예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문장이나 시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허균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특히 손곡이 古詩만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를 顏延之와 謝靈運의 풍격이 있다고 평한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古詩가 예스러운 건 그대로 베낀 결과인데 이를 귀하다고 보는 손곡의 안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결국 허균은 “저는 나의 시가 당시나 송시와 같다는 평보다는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허균이 作詩하는 안목과 손곡의 시평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손곡과 許筠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제지간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미 맺어진 사제지간의 인연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제로서 만났지만 허균이 성장해가면서는 시에 있어서는 서로 뒤질 수 없는 경쟁자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蓀谷山人傳』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읽어보고자 한다.

傳이라는 양식의 특성상 입전자의 행적을 모두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허균은 손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선 허균이 손곡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자신에게 시를 가르쳐준 스승이라는 측면이다. 이와 더불어 성장하면서는 자신과 시문관이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허균은 손곡을 입전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일까? 『蓀谷山人傳』의 입전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에 대한 노력과 그 결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손곡은 매우 박학다식했다. 허균은 그를 입전하면서 “그는 젊은 시절에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지은 글도 무척 많았다. (中略) 손곡이 처음에는 소식의 시법을 배워 한번 문득 붓을 잡으면 穠贍하여 읊기에 좋은 시들을 지었다.¹⁶⁾”고 적고 있다. 이는 唐詩를 익히기 전에 손곡의 학문과 시의 경향을 말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思菴(朴淳의 호)으로부터 詩道는 마땅히 唐詩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말을 들었다.¹⁷⁾ 손곡은 이후로 당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許筠은 그의 당시 학습과정이 남달랐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文選』과 이태백 및 盛唐의 十二家·劉隨州[유장경]·韋左史[위응물]와 伯謙의 『唐音』까지를 꺼내서 문을 닫고 암송하였다. 밤이면 날을 새운 적도 있었고, 온종일 무릎을 자리에서 떼지 않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5년을 지내자 어렵 뜻이 깨우쳐짐이 있었다. 시험 삼아 시를 지었더니 어휘가 무척 淸切하여 옛날의 수법은 완전히 씻어졌다. 그리하여 당 나라 여러 시인들의 詩體를 본받아 長篇·短篇 및 律詩·絶句를 지었다.¹⁸⁾

손곡의 당시 학습 과정을 말한 것이다. 날을 새거나 온종일 무릎을 떼지 않는 노력으로 당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지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곧 허균은 후대에 이름이 길이 전해질 시인은 이같은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려했던 것이리라.

둘째, 허균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숭고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손곡은 당시풍을 일으켜 이름이 조선에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므로 손곡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庶子라는 출생적 사실을 따지지 않았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다.

俗人들 중에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줄줄이 이어 있어, 여러 번 더러운

-
- 16)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蓀谷山人傳」, “達少時, 於書無所不讀……達方法蘇長公, 得其髓 一操筆輒寫數百篇, 皆禮瞻可詠”
 - 17)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蓀谷山人傳」, “一日, 思菴相謂達曰, 詩道當以爲唐爲正. 子瞻雖豪放, 已落第二義也. 遂抽架上太白樂府歌吟, 王孟近體以示之.”
 - 18)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蓀谷山人傳」 “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劉隨州·韋左史暨伯謙唐音, 伏而誦之. 夜以繼晷, 膝不離坐席. 凡五年, 悅然若有悟, 試發之詩, 則語甚淸切, 一洗舊日態. 卽倣諸家體而作長·短篇及律·絶句”

누명을 덮어씌우며 형벌의 그물에 밀어 넣었지만 끝내 죽게 하거나 그의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¹⁹⁾

이달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의 남다른 재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목숨이나 명성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는 당시 문단에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던 것이다. 곧 뛰어난 재주로 인하여 시기나 질투는 당할지언정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손곡이 지닌 시인의 숭고미였으며, 허균은 이를 입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손곡은 세속을 초탈한 삶을 살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으므로 입전한 것이다. 손곡은 陶淵明(도잠, 365-427)이 입전한 五柳先生과 같이 形骸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그는古今의 이야기를 잘했으며,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이르면 술을 즐겨 마셨다. 쫓나라 사람(왕희지 등을 가리킴)에 가깝도록 글씨도 잘 썼다. 그의 마음은 특 트여 한계가 없었고, 먹고 사는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아서 사람들 중에는 이 때문에 더 그를 좋아하는 이도 있었다. 평생 동안 몸을 붙일 곳도 없어 사방으로 流離하며 乞食까지 했으니, 사람들은 그를 대부분 천하게 여겼다. 궁색한 액운으로 늘어갔음은 참으로 그가 지은 시로 인한 시참(詩讖)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야 곤궁했어도 不朽의 명시를 남겼으니, 어찌 한 때의 부귀로 이 명예를 바꿀 수 있겠는가?²⁰⁾

손곡은 평생 동안 몸을 붙일 곳이 없어 사방으로 떠다니면서 乞食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를 천하게 여겼다. 그가 궁색하게 한 평생을 마치게 된 것은 시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19)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蓀谷山人傳」, “俗人之憎嫉者, 比肩林立. 屢加以污讎, 寘之刑網, 卒莫能殺而奪其名也.”

20)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蓀谷山人傳」, “善談今古, 及山水佳致喜酒, 能晉人書. 其中空洞無封畛, 不事產業, 人或以此愛之. 平生無着身地, 流離乞食於四方, 人多賤之. 窮厄以老, 信乎坐其詩也. 然其身困而不朽者存, 豈肯以一時富貴易此名也?”

만 그는 불후의 명시를 남겼다. 이는 한 때의 부귀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外史氏의 존재를 중국과 조선의 최고의 문필가로 설정한 것이다. 주지번은 중국 당대의 최고의 문필가요, 권필은 조선의 당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명망이 있던 인물이다. 이들의 평을 통하여 시인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손곡은 뛰어난 시적 재능을 지녔다. 그럼에도 불우한 생을 마쳤다. 또 허균의 스승이었다. 이것이 그를 입전한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外史氏의 평론 자료를 분석해 보면 許筠은 손곡의 뛰어난 시적 재능과 노력, 시인으로서의 숭고미, 현세를 초탈한 시인의 삶을 입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인간의 삶 : 「南宮先生傳」

「南宮先生傳」은 許筠의 무한한 상상력과 변화무쌍한 구성을 통하여 인간적 삶의 한계와 고뇌를 드러내고자 한 인물전이다. 곧 許筠은 유가와 불가와 신선의 세계를 경계 짓지 않는다. 그는 현실세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구성 방법을 시도했다. 허균은 이를 통해 삶에 대한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숙명에 안주해야하는 인간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다.

「南宮先生傳」은 許筠이 공주목사에서 과직당한 뒤 부안에 있을 때 남궁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입전한 것이다. 許筠은 남궁두를 통하여 숙명과 대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듯하다. 남궁두는 세속-불가-선계-세속을 넘나들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남궁두에게 드러나는 특징적 성격이 ‘忍’이다. 남궁두는 인간으로서 ‘忍’이 남달랐기에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먼저 許筠은 남궁 선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의 이름은 斗, 대대로 臨陂[전북 옥구의 옛 지명]에서 살아 집안도 오래 되고 넉넉하여, 재산이 고을에서는 알아주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는 과거에 뽑혀 관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남궁두만은 박사의 제자로서 과거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30세에 처음으로 을묘년 司馬試에 합격하여 科場을 올렸다. 일찍이 「大信不約賦」라는 글을 지어 成均館 시험에 수석으로 뽑혀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傳誦하기도 했다.²¹⁾

이는 인정부이다. 일반적으로 입전 인물의 가계, 신분, 성명, 주거지 등에 대한 서술이 주가 된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거에 뜻을 두고 처음으로 30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점이다. 30세의 나이로 사마시에 합격한 것은 특별하게 입전될 만한 내용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시험장에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은 남다른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글의 작자인 許筠은 생원시에 21살에 합격하였던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30세에 등과한 것이 당세에 화제가 되었다. 작자가 이를 입전 내용으로 삼은 것은 과거에 뜻을 늦게 두었거나, 여러 번 만에 합격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간에 남궁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뜻을 굽히지 않는 의지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내심이 강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許筠은 남궁두의 의지적 삶과 인내하는 강인함을 입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南宮先生傳」은 이를 바탕으로 숙명과 대결하는 인간을 그려낸 것이다. 그렇다면 許筠은 숙명과 대결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남궁두가 숙명과 대결하는 세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先生名斗, 世居臨陂, 家故饒, 財雄於鄉. 自其祖父二世皆不肯推擇爲吏, 斗獨以博士弟子業起家. 年三十 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賦 魁泮解, 人皆傳誦之.”

구분	현실세계	불가의 세계	신선의 세계	현실세계
내용	당숙과 애첩을 죽이고 관에 잡혔다가 도망침	몸을 잠간 의탁했다가 떠남	신선이 되고자 시도하다 욕념 때문에 실패함	현실에서 인간의 삶을 회구함
특징	권모술수의 세계	현실과 연결된 불교 세계	현실과 차단된 신선 세계	유가와 신선세계

남궁두는 유가의 세계에서 영달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영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거만하고 고집이 세며,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성격이었다. 감히 자신의 재주만 믿고 고을에서 멋대로 지냈고 잘난 체하며 장리에게도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래서 읍내의 모든 사람이 남궁두를 싫어했다. 그는 성균관 시험에서 「大信不約賦[큰 믿음은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글로서 장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과는 상반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다.

남궁두는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으로 서울로 이사한 후 시골집에는 애첩만을 두고 일처리를 맡겼다. 그런데 애첩은 성이 다른 당질과 사통하였고, 이를 목격한 남궁두는 살인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유가적 삶을 포기하고 은둔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이다. 여기서 남궁두가 유가적 현실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살펴보자.

농장의 어떤 종놈이 남궁두의 곡식 1백여 석을 훔친 적이 있어 남궁두가 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그 자는 남궁두가 두 사람을 죽였지 않을까 의심하고는 그 자취를 찾았다. 벼는 도랑의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걸 보고서 샅질하여 파보니 두 시체가 엮어지고 뒤집어져 있었다. 곧바로 첩의 집에 알리자 노인들은 縣丞에게 고발하였다. 사내 집안에서는 宿怨이 있었다는 증거를 세웠다. 현령이나 여러 아전들은 본래부터 남궁두를 불쾌하게 여겼기에 모두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달게 여겼다. 그리고 사사로운 미움으로

당질을 謀殺했다고 罪案을 꾸몄다. 서울에서 두는 형틀에 묶이고, 五毒을 첨가한 죄인의 수레에 태워 尼山[충남의 지명]에 이르렀다. 남궁두의 아내가 어린 딸을 업고 뒤늦게 도착해서는 看守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고 밤에 형틀을 풀어 빠져나가게 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간수가 그가 없음을 알아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읍내까지 데려와 딸과 함께 옥중에서 굶겨 죽였다.²²⁾

남궁두는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종의 추적으로 잡혔다. 이를 계기로 평소 남궁두를 불쾌하게 생각했던 현령과 아전들은 전후 사정에 관계없이 매몰차게 일을 처리했다. 또한 남궁두를 도망하도록 도운 그의 아내와 딸을 옥중에서 굶겨 죽였다. 결국 남궁두를 유가의 현실에서 살 수 없도록 추방한 것이다. 남궁두는 뛰어난 재주와 강인한 인성을 지닌 의지적 인간이다. 그러나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지만 인간적 도리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타협하기 보다는 강인함으로 맞섰던 것이다. 결국 남궁두는 현실사회로부터 추방당하는 좌절을 맞보아야 했던 것이다. 더불어 許筠은 남궁두가 살았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당세를 고발하고 있다. 자기가 모시던 상전을 모함하려고 애쓰는 중, 자신들에게 달갑게 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아치고, 두의 처와 딸을 굶겨 죽이는 벼슬아치들은 당세 유가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것이 許筠이 드러내고자 했던 유가적 사회의 현실이다. 결국 남궁두는 이러한 당대의 현실과 대립하다 좌절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궁두는 유가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불가의 세계에 의탁한다. 금대산으로 들어가 총지란 이름으로 중이 된 것이다. 그러나 원수로 여기던 집

22)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有莊奴竊斗穀百許石, 常恐斗來則必死, 疑斗之殺二人, 尋其跡. 田瀆有膏沸於水上, 錫發之, 二屍俯仰焉. 卽奔告妾家, 老革告于令, 引男家證有宿怨. 令與諸吏固嘗不快於斗, 俱喜而欲甘心, 以私嫌謀殺堂姪爲案. 械斗於都下, 五毒備漆, 攬至尼山. 斗之妻負幼女追至, 醉守者 夜脫械逸去. 天亮 守者覺之, 跡不獲. 以其妻致縣, 竝女庾死獄中.”

에서 남궁두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잡으러 왔다. 그러나 꿈속에 나타난 산신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궁두에게 있어 불가의 세계는 거쳐 가는 삶의 공간이었다. 곧 유가의 현실세계에서 신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남궁두는 태백산으로 가던 중 의령의 野庵에서 관상을 볼 줄 아는 어린 중을 만났다. 그에게서 치상산에 선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치상산으로 선사를 찾아 갔다. 며칠을 처마 밑에서 배움을 간청하였다. 남궁두의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고 선사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결국 남궁두가 신선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과 인내심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인간으로서 신선이 되고자 도전한다.

첫날밤에는 앉아서 四更을 지내자 눈이 저절로 감겼으나 참아내고 새벽까지 보냈으며, 둘째 날에도 정신이 흐리고 피곤하여 일을 살필 수 없었으나, 각고의 뜻으로 굳게 참아냈다. 셋째와 넷째 날의 밤에도 피로하고 고달파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더러는 머리를 벽에 짚고 부딪히며 겨우 참았다. 일곱째 밤을 지냈더니 툭 트이듯 정신이 밝게 깨쳐 상쾌함을 자각할 수 있었다. 長老가 기뻐하며, “그대에게는 정말로 큰 인내력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를 수 없겠나?”하고는 두 가지의 經傳을 꺼내 주었다.²³⁾

이는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다. 남궁두는 자신의 인내심을 바탕으로 신선수업을 함으로써 유가적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남궁두는 현실 세계와 차단된 공간에서 죽지 않는 방술을 배웠다. 곡기를 끊고 검은콩 가루를 먹는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신선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욕념으로 인하여 신선의 경지에 드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

23)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初夜坐到四更眼自合, 忍而至曙. 第二夜昏倦不省事, 刻意堅忍. 三夜四夜倦困不能植坐, 頭或撞於壁楣猶忍過. 第七夜脫然朗悟, 精神自覺醒爽. 長老喜曰, 君有許大忍力, 何事不可做乎? 因出二經授之.”

단련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丹田이 가득 채워지고 배꼽 아래서 금빛이 나오
고 있었다. 남궁두는 道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다 급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숫아남을 억제할 수 없더니 姤女[神丹의 물]에 불이 붙어 위로 泥丸을 태우
자 고통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長老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슬프다,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려.” 하고는 급히 남궁두를 편안히 앉게 하여 氣를
내리게 하였다. 기는 비록 수그러졌으나 마음이 두근거리려 온종일 안정되지 않
았다. 장로가 탄식하면서, “세상에서 드문 사람을 만났기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業의 가로막음을 제거하지 못하여 끝내 엎질러지고 말았으니
그대의 運命이지,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하겠나?” 하고는 이어서 회복시키는 차
[蘇茶]를 마시게 하였다. 7일 만에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에 뜨거움이 오르지
않았다. 長老가 “그대는 비록 神胎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역시 地上의 神仙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금만 더 수양한다면 8백세의 壽를 누릴 수 있을 거네. 그
대의 運命에는 당연히 아들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精子가 나오는 길이 이미 막
혔으니 服藥하여 트이도록 하게나.”²⁴⁾

남궁두는 신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에서 급히 이루고자 하
는 욕념 때문에 신선이 되지 못한다. 그는 현실에서의 좌절을 극복하고
자 이상적 가치의 실현(신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결국 실
패하여 지상선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궁두는 아들을 둘 관상이
있으므로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나 남궁두는 하산해서도 신선에 대
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모양이다.

늘 생각하던 착실한 늙은 종이 있었다. 그 종은 海南에 살며 충분한 田宅도

24)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煉幾六朔, 丹田充盈, 若有金彩發於臍下. 斗喜其將成, 欲速之心 遽萌芽不能制, 姤女离火上燒泥丸, 絕叫趨出. 長老以杖擊其頭曰, 噫! 其不成也, 亟令斗 安坐降氣. 氣雖制伏, 而心沖沖終日不定. 長老歎曰, 曠世逢人 教非不盡, 而業障未除, 遂致顛敗, 君之命也, 吾何力焉? 因以蘇茶飲之. 至七日心方恬而氣不上炎. 長老曰, 君雖不成神胎, 亦可爲地上仙. 少加樽養, 則八百年之壽可享矣. 君命當有子, 洩精之竅已塞, 可服藥以通之.”

있다가에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다.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하더니 얼마 후에 자기 주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서로 붙잡고 통곡하며 울어댔다. 그가 살던 곳을 비워 주며 거처하도록 하였다. 常民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았다. 선생은 비록 다시 家業을 세웠으나 스승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해남에서 떠나 龍潭의 지역에 은거하였다. 깊은 산골짜기를 골라서 살았으니, 雉裳山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다시 仙師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으리라. 수십 년 동안 黃精과 솔잎을 채취하여 식사로 했으니 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해져 수염도 희지 않고 걸음걸이도 나는 듯하였다.²⁵⁾

남궁두는 하산하여 늘 생각하던 종을 찾아가 의탁하였다. 그의 주선으로 거처도 구하고, 민가의 여인을 맞아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용담에 은거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황정과 솔잎을 먹어 날이 갈수록 몸이 건강해졌고, 머리도 세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도 나는 듯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남궁두는 이러한 삶에서 다시 좌절한다.

“내가 처음에는 飛昇하리라 여겼는데 빨리 이루고 싶어 하다가 이루지를 못하고 말았네. 우리 스승님께서 이미 지상의 신선은 되었으니 부지런히 수련하면 8백세의 나이는 기약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네. 요즘 山中이 너무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으나 이는 사람 한 사람 없을뿐더러, 가는 곳마다 젊은 이들이 나의 늙고 누추함을 멸시하여 인간의 재미라고는 전혀 없네. 사람이 오래도록 보고 싶어 하는 것이란 본래 즐거운 일인데, 쓸쓸하고 즐거움이라고는 없으니 내가 왜 오래 살려고 하겠는가?”²⁶⁾

- 25)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常念有老實奴在海南. 富有田宅. 往投之而初不識焉. 久乃認爲其主, 相持號慟. 空其居而處之, 爲娶民家女, 生子女各一. 先生雖更立家業, 佩服師訓, 終始不少懈. 去隱于龍潭地. 擇深谷以居, 爲近雉裳, 冀再遇仙師計. 而數十年採黃精松葉食之, 身日益強, 鬚髮不白, 步履如飛.”
- 26)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旣許以地上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近日山中頗苦閑寂, 下就人竇,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輕其老醜, 了無人間興味.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이는 남궁두가 허균을 만나서 늘어놓은 이야기이다. 현실세계에서 지상선으로 살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83세의 나이지만 얼굴은 마흔에닐곱 살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산중의 생활이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다가 또 좌절한다. 세상의 젊은 것들이 자신의 실제 나이와 다른 모습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하여 즐겁기를 바랐으나, 산중의 고요하고 적막한 삶은 즐거움이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궁두는 인간의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속인들의 삶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하늘이 내린 이치를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은 끝없이 좌절하고 그 속에서 고뇌한다. 지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는 인간적 고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南宮先生傳」의 입전인물 남궁두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고뇌한다. 처음에는 유가의 현실에서 추방되는 좌절을 맛보았다. 뛰어난 능력과 강인한 정신을 지니고 있었으나 자만심과 거만한 태도로 생활하였다. 거기다가 남궁두는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현실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므로 유가사회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에 남궁두는 선계로 나아가서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남궁두는 인내심이 강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간의 욕념으로 다시금 신선이 되지 못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현실세계에서 지상선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두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뇌한다. 현실의 삶에서 장수는 곧 즐거움을 위한 것인데 실제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자신이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한 회한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궁두는 지상선으로서의 삶에서도 좌절을 겪고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而悄然無樂，吾何用久爲?”

따르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곧 속인들이 먹는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도 안아보고, 손자 재롱도 보며 여생을 보내는 삶에 안주하게 된다.

「南宮先生傳」은 끝없는 좌절과 고뇌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 인간의 모습을 전하는 인물전이다. 許筠이 이 글을 전으로 분류한 것도 남궁두라는 실존 인물을 입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글에는 남궁두의 일대기 속에 남궁두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적 부분에 남궁두의 스승 권진인의 일대기도 삽입되어 있다. 곧 「南宮先生傳」은 처음 남궁두 인정부 - 유가 세계에서 살인하게 됨 - 불가에 귀의(1년) - 치상산에서 권진인을 만나 수련하나 육념으로 실패함 - 권진인의 인정부 - 권진인의 행적부(도술 장면) - 현실세계로 돌아와 결혼하고 삶 - 許筠과 만나 자신의 행적을 알려주고 심정을 말함 - 許筠의 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권진인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며, 남궁두를 입전하는 글에서 이는 무엇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권진인의 이야기는 남궁두가 궁금해 하는 것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권진인의 내력, 권진인의 신기한 힘, 권진인의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남궁두가 스승의 내력을 궁금해 하자, 장로는 자신의 내력을 두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준다. 다음은 권진인의 일대기를 요약한 내용이다.

나는 상락의 큰 성씨의 후손으로 태사 권해의 증손자이다. 송나라 회령 2년(1069년 고려 문종23년)에 태어났으나 열네 살에 나병에 걸려 부모가 거두어주지 않고 숲 속에 버려졌다. 그런데 밤에 호랑이가 안아다가 석실에 놓아주어 그곳에서 초라라는 풀을 먹고 살게 되었고 나병도 나왔다.

우연히 숲 속에 나와 서성거리다 한 중을 만나 이곳이 태백산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산의 암자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늙고 병든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내가 자신의 스승님이 전해준 비결서를 받을 사람이라면서 보자기를 풀어 책을 전해 주었다. 그 책을 주면서 만 번을 읽으면 그 진리를 알 것이라고 하였다. 그 책의 출처를 묻자 신라 의상대사가 중국에 들어가 정양 진인을 만나 전해

받은 것이며 자신이 전달받은 것이라 하고는 곧 입적하였다.

전해준 책은 도교의 경서들로 『황제부음경』, 『금벽용호경』, 『참동계』, 『황정내외경』, 『최공입약경』 등이었다. 나는 그 암자에 독거하면서 경서들을 읽으며 스승이 알려 준대로 수련을 하여 성공하였다. 상제의 명으로 동국 삼도의 모든 신을 거느리며 수백 년을 지냈으나, 임무를 맡기고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이상의 이야기는 권진인의 이야기 중 인정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권진인의 출생 내력과 신선술을 배우게 되는 계기를 밝힌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면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보인다. 500여세에 이르는 나이, 호랑이가 안아다 석실에 두었다는 점, 권장로의 스승이 의상대사라는 점 등은 속세의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것은 신선 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궁두가 그에게 내력을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대는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니 자세히 말해 주겠다.”고 전제했던 것이리라. 여기서 ‘잘 참아내는 사람’이란 선선의 세계에서 신선술을 배우던 사람으로 선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라 여겨진다. 다음은 권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힘의 비밀을 남궁두에게 알려준다.

남궁두는 장로와 함께 오랫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곤 했지만 그가 배꼽 아래 한 치[寸] 정도의 부분을 가려서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늘 이상하게 여겼다. 그 까닭을 물으며 보고 싶다고 했더니, 장로(長老)는 웃으면서, “그걸 왜 쉽게 보여 주랴. 보여 주면 그대는 깜짝 놀라 까무러칠 것인데.” 하였다. 남궁두는 “왜 놀라겠습니까? 한 번 보는 것이 원입니다.”하자, 長老가 싸맨 것을 풀어 놓으니 반짝이는 금빛 1백여 줄기가 천장까지 쏘아댔다. 바로 볼 수도 없어 의자 밑으로 숨으니 長老는 다시 그걸 싸매서 전과 같이 하였다.²⁷⁾

27) 許筠, 『惺所覆瓿藁』卷8, 「文部」5, 「南宮先生傳」, “斗興長老久同寢, 常怪其祕臍下寸地 不許人見. 問其故欲觀之. 長老笑曰, 何容易耶? 見則恐驚君耳. 斗曰 奚驚爲? 願一見. 長老解下包, 金光百道, 射於屋梁, 不能定視, 蒲伏於榻, 長老還包之如故.”

권진인은 자신의 배꼽 한 치 아래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선들이 지닌 힘의 원천인 듯하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금빛 1백여 줄기를 쏘아대는 강한 힘이 나오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남궁두는 스승 권진인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한다. 정월 보름이 되어 장로[권진인]는 옷을 갖추어 입고 기다리자 1천여 마리의 괴이한 짐승들과 귀신들이 나타나 각각 장로에게 인사를 한다. 또 여기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광하 등 세 진인을 불러, 다가오는 액운을 물리칠 방책을 묻자 그들은 큰 운수의 소관이므로 감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다. 이는 조선에 닥칠 임진왜란에 대한 신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 여겨진다.

권진인 이야기의 삽입은 남궁두의 도교 행적을 더욱 신빙성 있게 만들어 준다. 이는 「南宮先生傳」에서 蛇足과 같을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하나의 전이라고 여길 정도로 구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南宮先生傳」을 남궁두의 스승인 ‘권진인’이라는 異人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기도 한다.²⁸⁾ 그러나 이것은 「南宮先生傳」의 입전 인물 남궁두의 기이한 행적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권진인 이야기는 신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현실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권진인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傳의 양식을 빌어서 출생 내력과 학습과정, 신기한 힘, 신기한 행적 등을 기록하여 삽입한 것이다. 다음은 許筠이 논평부에서 한 말이다.

내가 본 남궁선생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기이하다 할 만하다. 선생의 스승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의상 대사에게 연었다고 하는지 이는 꼭 믿을 만한 것 같지는 않다. 말한바 또한 모두 그럴듯하지는 않으니,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처럼 확실한 실체가 없는 일이다.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를 보아서 참으로 득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나이 여든에 이처럼 건강할 수 있겠는가? 그러

28) 전준이, 「허균 傳의 양식적 특성과 입전의식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62.

므로 이런 일이 실제 없었다고 결코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 아아! 참으로 기이하다!²⁹⁾

許筠은 자신도 너무나 황당해서 믿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이 여든에 남궁두처럼 건강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믿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許筠이 남궁두로부터 신선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그렇기에 결국 권진인 이야기의 구성이 하나의 인물전과 같이 치밀하게 엮어진 듯하다. 구성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南宮先生傳」에 실은 남궁두의 신선 수업에 대한 내용은 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권진인 이야기는 도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권진인이 광화 등 세 진인에게 당시의 전쟁 조짐에 대해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삼한의 백성들이 불효·불충하고, 귀신을 모독하였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본다면 당세는 유가적 이념이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고, 더불어 귀신을 모독할 정도로 도교에 대해 무지했었음을 말한다. 또 당대 분위기가 이와 같았다면 권진인 이야기는 도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 許筠이 영불했다는 이유로 삼척부사에서 파직될 때, 광재우도 도교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었다.³⁰⁾ 이러한 세태에서 도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방책

29) 許筠, 『惺所覆瓿藁』 卷8, 「文部」 5, 「南宮先生傳」, “然以余所觀 南宮先生言之, 可異焉. 先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 要之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真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 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 其奇哉!”

30) 『朝鮮王朝實錄』, 宣祖 1211卷, 「40年 5月 6日(戊辰)」 “헌부가 말하기를 어제 聖批를 받들건대 또 ‘포용하여 그대로 두어야지 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전교하셨으니, 신들은 의혹됨이 더욱 심합니다. 삼척 부사 허균은 儒家의 자제로서 도리어 異教에 빠져 승복을 입고 예불을 외고 있으니 몸은 조정에 의탁하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의 중이고, 전 右尹 郭再祐는 吐納·導引(호흡을 통해 ‘氣’의 흐름을 조정하여 방사에 응용하는 도가의 수련법)하고 벽곡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며 괴벽한 일을 행하여, 중외에서 그걸 본받는 자의 唱導가 되고 있으니 이름은 재상의 반열에 있지만 역시 하나의 道流

이었다. 작자인 許筠은 도교에도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³¹⁾ 그러므로 장대하고 상상력이 돋보이는 권진인 이야기를 삼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균은 이를 통해 도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南宮先生傳」의 입전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허균은 「南宮先生傳」을 통하여 삶은 끝없는 좌절과 고뇌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좌절과 고뇌 속에서 현실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지만, 중국에는 인간으로 돌아온다. 이는 인간의 숙명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인생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궁두는 이러한 진리를 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허균에

입니다. 사대부로서 오히려 이러하니, 時習의 不正과 인심의 괴이함이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어찌 포용하여 방치하고 죄를 주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울러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憲府啓曰, “昨承聖批, 又以 ‘包容置之, 不必加罪’ 爲教, 臣等之感滋甚焉. 三陟府使許筠, 以儒家子弟, 反入異教, 服緇禮佛, 掛珠誦經, 則托跡朝紳, 而眞一僧徒也. 前右尹郭再祐, 吐納導引, 辟穀不食, 敢行迂怪, 爲中外慕效者倡則, 名在宰列, 而亦一道流也. 以士夫而猶尙如此, 則時習之不正, 人心之詭異, 將至於不可救. 豈容置之而莫之罪乎? 請勿留難, 竝命罷職不敘.”]

31) 허균은 113세 된 노인과 만나 자신이 깨달은 방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許筠, 『惺所覆瓿藁』 卷12, 「文部」 9, 「任老人養生說」, “내가 노인장의 말씀을 듣고 양생하는 방술을 얻었습니다. 신선이 되는 것은 만드시정(精)과 기(氣)와 신(神)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이 장가들지 않은 것은 정을 보전한 것이고, 음식물을 가리고 배부르게 먹지 않은 것은 기를 보전한 것이며, 화를 내거나 가사를 걱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을 보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그 많은 수명을 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타고난 진기를 흔들지 않고 다만 주리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는 것은 바로 마음을 靜定시키는 첫째 관문이며, 삼주뿌리와 황정 또한 약 중에서 상등품으로, 노인장이 능히 그 일을 실행하면서, 그것을 복용하였으니 신선이 되어 높이 올라갈 날이 어찌 멀겠습니까?〔吾聞之叟之言, 而得養生之術焉. 爲仙者, 必保精與氣與神也. 叟之不娶 保精也, 擇食不飽 保氣也, 不嗔怒營爲 保神也. 三者既具, 宜其壽之多也. 況不動吾眞, 而只飢飡倦睡, 乃靜定第一關, 而術黃精亦藥之上者, 叟能行之能服之, 其昇仙遐舉也, 何遠哉?!”]

게 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잦은 浮沈에 괴로워했던 許筠에게 이러한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Ⅲ. 結論

허균은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인간형을 갈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허균의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嚴處士傳」과 「蓀谷山人傳」, 「南宮先生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嚴處士傳」은 「學論」에서 비판한 僞學者들에게 경계가 될 만한 참된 儒者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許筠은 엄처사는 뚜렷한 출처관과 역사 인식을 가지고 孝와 敬을 실천한 선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蓀谷山人傳」은 許筠에게 시를 가르친 스승 李達(1539-1618(?))에 대한 인물전이다. 허균은 이를 통하여 뛰어난 시적 재능과 노력, 시인으로서의 승고미, 현세를 초탈한 시인의 삶을 입전하고자 했음 알 수 있다.

또한 「南宮先生傳」에서는 삶은 끝없는 좌절과 고뇌의 연속이라는 진리를 보여주고자 했다. 주인공 남궁두는 좌절과 고뇌 속에서 현실 세계를 떠나 신선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찾지만, 終局에는 인간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에 순응하는 인생이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잦은 浮沈에 괴로워했던 자신의 삶을 남궁두라는 주인공을 통해 위로 받고 싶었던 것이다.

<參考 文獻>

- 許筠, 『국역 성소부부고』 I-V, 민족문화추진회, 1989.
- 李達, 『蓀谷詩集』, 『한국문집총간』 61, 한국고전번역원
『朝鮮王朝實錄』, 『宣祖實錄』
- 강동엽, 『조선 지식인의 문학과 현실인식』, 도서출판 박이정, 2008.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 설석규, 「16세기 處士型士林의 性理學理解와 出處觀-花潭徐敬德과 南冥曹植의 경우-」, 『南冥學研究論叢』 9, 남명학연구원, 2001.
- 신병주, 「16세기 초 處士型學者의 學風과 現實觀-金大有와 朴河談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論叢』 5, 남명학연구원, 1997.
- 전준이, 「허균 傳의 양식적 특성과 입전의식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Life that Heo-Kyoon aims for - Focused on Heo-Kyoon's <Jeon>
/ Lee Kyu Un*

Heo-Kyoon(1569, Seonjo, 3rd year, Gwnahaegun, 10th year) was a writer who showed timeless life and literary excentricit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life that Heo-Kyoon aims for, being focused on Heo-Kyoon's <Jeon>.

Heo-Kyoon was yearning for a new human type who can relieve complaints about the real world. "Eomcheosajeon" tried to show truthful "Yoosang"(Confucian scholar) who could alert the "Wihakja(persons who pretend to be truthful scholar)" who were criticized in "Hakron". Therefore, Heo-Kyoon tried to emphasize that Eomcheosa was a classic scholar who practised "Hyo(filial duty)" and "Gyung(dutiful respect)" with definite view about source and historical perception.

"Songoksaninjeon" is a story of Lee, Dal(1539-1618(?)), a teacher who taught poetry to Heo-Kyoon. Heo-Kyoon, through this, tried to deliver the message about his great poetic talent, effort, sublime as a poet, the life of a poet who transcended mundane life.

In "Namgungseonsangjeon", he tried to show the truth that a life was a series of endless frustration and anguish. "Namgundu", left the real world in frustration and anguish and found a new life in the world of Taoist hermits, but he returned to the arms of a human being, in the end. It seems that he realized that the life that adapted itself to the given destiny was the most enjoyable life. Heo-Kyoon wanted his life suffering from frequent highs and lows, consoled by "Namgungdu" the hero.

* Wonju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 / ddd3315@empas.com

【Key words】 Heo-Kyoon, “Eomcheosajeon”, “Songoksaninjeon”,
“Namgungseonsanjeon”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